

제35호

발행일 : 서기 2017년 2월 27일(월)
 창간일 : 서기 2000년 8월 25일
 구독신청 : (02) 836-5631
 FAX : (02) 833-9401
 H.P. : 010-4711-8127

安東金氏 翼元公派宗會報

발행인 : 김석한
 편집인 : 김영수
 발행처 : 안동김씨의원공파종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8길 8(대림동)
 인쇄인 : 김성회
 사무실 전화번호 : (02) 836-5631
 사무국장 휴대전화 : 010-4711-8127

신년사



회장 김석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친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명신년을 보내고 대망의 丁酉年을
 맞이하여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경제 불황 속에서도 종친 여러분들께서는 한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정진하시여 밝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희망찬 내일을 위해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종회 발전을 위해 설계하고 실천하는데
 전념을 다하였습니다.

- 작년에 이어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제 회관내부도 깨끗하게 정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약 4년 동안 준비해오던 대동보도 완성이 되여 종친 여러분께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신 종친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종회사무실로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2017년 현재 우리 종회는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문영공지원자금 1억 원, 토지보상금 1억 원, 족보대금 1억 원 등 5억 원 이상을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특명한 종회 운영을 통하여 예산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절약하여 남은 자금이 거의 없었던 살림을 2억 이상 확보한 성과는 그동안의 성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지출에서부터 큰 예산 집행 건까지 지출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회계 원칙을 확립한 것이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전 종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익원공종회는 선조님들의 위업을 발굴하고 또 재조명하여 후손들에게 전수 홍보하는 선양사업과 인재 육성 사업인 장학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종친들을 위하여 나아가 종회의 눈부신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이제 우리 종회는 명실상부한 명문 종회로서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종회를 선도해 나가는데 우리 종친들께서도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丁酉年 새해에 새로이 품은 꿈들을 모두 달성하셔서 일신과 가정과 문중의 발전을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27

안동김씨의원공파 종회 회장 김석한

謹賀新年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임원들은 새해에도 종친 여러분께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리오며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동김씨의원공파 임원 일동

顧問

洙栢(부), 恒植(부), 在寬(전), 在勳(전), 明勳(전)
 榮俊(문), 在瑢(문), 太圭(문), 泰吉(효), 容大(효)
 榮宗(목), 文元(목), 容世(목), 仲元(목)

任員

名譽會長	善會(부)
會長	錫漢(전)
副會長	三郎(부), 在湜(전), 在元(전), 在永(문) 在鎮(문), 根植(문), 容默(효), 在男(효) 允默(효), 聖會(효), 智默(효), 鍾會(목) 寅會(목), 泰麟(목), 容鴻(풍)

監事

洙寅(부), 晟會(문)

理事	容植(침), 容九(침), 煙鎭(부), 銀業(부) 京會(부), 正會(부), 信會(부), 淑銀(부) 昌會(부), 光洙(부), 大植(부), 容官(부) 奉會(부), 在澤(전), 在善(전), 榮喆(전) 泰振(전), 正會(전), 在萬(전), 在奎(전) 銀會(전), 潤默(문), 鐸默(문), 在潤(문) 永會(문), 泰龍(문), 善會(문), 允會(문) 德會(문), 東植(문), 珍會(문), 奉會(문) 淑山(문), 根植(문), 泰喆(문), 成會(문) 昌植(문), 東洙(문), 水運(문), 在封(효) 在南(효), 在和(효), 在洪(효), 在源(효)
----	--

激教(효), 達洙(효), 春植(효), 吳鎮(효)

泰連(효), 英桓(효), 永詳(효), 容瑞(효)

榮和(목), 鐸默(목), 再翰(목)

在賢(목), 在俊(목), 福述(목)

哲會(목), 桂默(목), 在陽(목), 泰慎(목)

洙鐘(종), 淑大(목), 泰正(목), 正默(목)

玄默(풍), 俊燁(풍), 榮天(풍), 在鳳(효)

事務總長 榮秀(전)

(참=참의공, 부=부령공, 전=전첨공, 문=문정공, 효=효소공, 목=목사공, 풍=풍양군)

안동김씨의원공파종회 정기총회 및 정기 이사회 개최

2017년도 안동김씨의원공파 종회 제48회 정기총회 및 정기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안건 · 2016년도 수입, 지출 결산보고 및 2017년도 예산(안)서 심의 의결
 · 대동보 정산보고 · 회책 개정 · 기타 안건

◎ 장소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88-2 한강호텔 TEL: 02-444-6611

◎ 지하철 : 5호선 광나루역(2번 출구) 5분 거리,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 횡단보도 옆 셔틀버스 이용(10분 간격)

“알림” : 당일 익원공파 종회, 회의가 종료되는대로 이어서 동추공, 문정공, 목사공 회의가 개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사명	일정	장소	참석 범위
익원공파 종회	2017년 3월 22일(수) 11시	광진구 광장동 한강호텔	익원공파종회 회원
대종회	2017년 3월 23일(목) 11시	효창공원 백범기념관	익원공파종회 회원
익원공파이사회	2017년 3월 8일(수) 11시	광진구 광장동 한강호텔	익원공파 이사
대종회 이사회	2017년 3월 9일(수) 11시	효창공원 백범기념관	대종회 이사

익원공 謹, 사형 제609주기향사 및 밀직사사공 謹, 승 제580주기 향사 봉행



2016년 11월 5일(음 10월 6일) 11시
토요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49번지 묘하에서 전국
에서 200여 참제자들이 모인가
운데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올
리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향사
가 봉행이 되었다. 향사전 분정
회의에서 익원공 향사에는 초현
관 성회(부회장 효소공) 아현관
봉회(대종회장) 종현간 재형(강
릉 목사공) 집례 재영(부회장 문
정공) 진설 대식(부회장 전첨공)
대축 재만(전첨공 동두천) 찬인
영화(목사공 대구) 봉향 신회(부
령공 서울) 봉로 재원(효소공 부
산) 사준 용호(문정공) 봉작 형
식(문정공) 전작 태철(문정공 수
원) 직일 재용(고문 서울) 님 등이
추천되어 향사가 봉행되였으며
이어서 밀직사사공 향사에도
익원공 분정례에 준하여 추천된
제관은 초현관 영화(목사공 대
구) 아현관 석회(안렴사공) 종현
관 수인(감사 고창) 등의 현작으
로 향사를 질서정연하게 종료
하고 낙포재에 마련된 음식을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며 종친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되였다. 이날 술안주로 흑
돼지한마리를 잡고 당진 용세 고문께서 직접 빚은 백련맑은 술로 제주
와 음복주로 참제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익원공파始祖이신 휘 김사형의 호는 낙포(洛圃)이고 안동부인(安東
府人)이다.

우리 중시조이신 상락군 개국공신 충렬공의 현손이시며 중대광상
락군 김순(金恂) 문영공의 증손이시고 상락후 김영후(金永煦) 정간
공의 손자(孫子) 중, 보국승록대부 영삼사사 상락군 김천(金載)의
아들이시다.

고려 충렬왕 2년에 출생하여 고려의 벼슬은 단성보리공신 삼사좌사
동판도 평의사사를 역임하였으며 조선왕조에서는 순충분의 좌명동덕
개국공신 추충협찬정란정사공신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좌증승 겸
삼훈관 경영연사 감춘추관사 세사자 상락백부원군 식읍 1천호 식실봉
300호 시호는 익원공이시다. 태

종7년(1407년) 7월 30일에 향년
67세로 서거하였다.

아들은 들이며 큰아들은 陸(육)
은 동지중추공 둘째陞(승)은 밀
직사사공이시다.

조준과 더불어 8년동안 정승에
있었으며 처음 벼슬할 때부터 운
명할 때까지 한번도 탄핵을 당하
시지 않았으며 강직하고 명확한
성품으로 백성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다.

2016. 11. 5(음 10.6)



제609주기 익원공(휘) 사형 향사 향촉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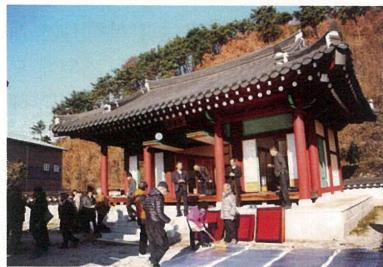
2016. 11월 5일 토요일 11시

순번	성명	금액	주소
1	김석한	1,000,000	익원공파종회 회장
2	김선회	200,000	명예회장, 서울 강북구
3	김재영	100,000	부회장 문정공 수원
4	김문원	100,000	고문 목사공 서울
5	강릉 종친회	100,000	강릉 지역 종친회
6	대구 종친회	100,000	대구 지역 종친회
7	김영화	100,000	이사 대구 목사공
8	김재익	100,000	인천 연수구 목사공
9	김정목	50,000	이사 대구 목사공
10	김영채	50,000	고문 강릉 목사공
11	김재용	100,000	고문 서울 문정공
12	김태철	50,000	이사 수원 문정공
13	김지목	100,000	부회장 동주공회장
14	김창식	50,000	이사 문정공
15	김재식	100,000	부회장 전첨공회장
16	김용대	100,000	고문 효소공 서울
17	김대진	50,000	이사 효소공 서울
18	김용서	50,000	이사 효소공 서울
19	김재원	100,000	이사 효소공 부산
20	김준목	100,000	이사 대구
21	김재도	50,000	전첨공 동두천

순번	성명	금액	주소
22	김용세	100,000	고문 당진 목사공 제주 3박스
23	김현회	50,000	목사공
24	김삼랑	100,000	부회장 좌랑공회장
25	김선회	100,000	대종회 고문 안렴사
26	김수창	50,000	좌랑공 고창
27	김수엽	50,000	이사 좌랑공 고창
28	김우식	50,000	효소공
29	김춘식	100,000	안렴사공수도권회장
30	김용묵	100,000	부회장 효소공회장
31	김태주	100,000	용인시 수지구
32	김봉회	100,000	대종회 회장
33	김태길	100,000	고문 효소공 청주
34	김재남	100,000	부회장 효소공 수원
35	김재만	100,000	이사 전첨공 동두천
36	김태영	50,000	이사 문정공
37	참의공 종회	200,000	고창
38	좌랑공 녹등종회	200,000	고창
39	좌랑공 종회	200,000	고창
40	안산이목종종	200,000	문정공
41	문정공 종회	100,000	문정공

순번	성명	금액	주소
42	안렴사공종회	100,000	안렴사공
43	대종회	100,000	대종회
44	김재광	200,000	목사공 효소공재광아님
45	김영수	100,000	익원공파종회사무총장
46	김태규	100,000	고문 상주 문정공
47	김성회	100,000	예천 고령 종회
48	김근식	100,000	부회장 문정공 회장
49	김진회	50,000	이사 문정공
50	김향묵	100,000	문정공 춘천
51	김성회	100,000	부회장 효소공
52	김종회	100,000	부회장 목사공 회장
53	김재진	100,000	부회장 문정공
54	김선회	50,000	당진
55	김종출	30,000	참의공
56	목사공종종	100,000	목사공종회
57	문영공 종종	100,000	문영공 종종
58	김윤문	100,000	부회장 효소공
59	김종회	100,000	참의공 고창
60	김중원	100,000	고문 목사공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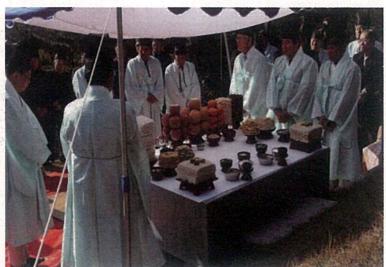
동추공 휘 종숙 시향사 봉행



2016년 11월 10일(음, 10월 10일) 수요일 11시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내리 113-1번지 동추공묘에서 전국 각지에서 100여 참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중원의 집례에 따라 경건하고 엄숙하게 제례행사를 봉행이 되었다.

동추공은 휘 종숙 익원공 휘 사형 파시조님의 4손 이시며 행, 동지중추부사, 증대광보국승록대부 영의정 상락부원군이시다.
분정에는 초현관-지묵 (동

추공회장) 아현관-종희(목사공회장) 종현관-창식(문정공) 대축-항묵(문정공) 재용(충렬공기념사업회 회장) 강평으로 제례행사를 마치고 당진 용세 고문(목사공)께서 보낸 백련맑은 술을 음복주로 나누며 조상님의 위업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다.



경현 김효건 선생 문집 발간



2016년 11월 11일 5시 충렬공 김방경 기념사업회 회장 金在璿(前, 제19대 익원공파 종회 회장) 주관으로 서울시 중구 필동2가 한국의집 취선관에서 안대회(성균대한문학과) 교수와 김봉희 대종

인(影印), 번역한서적 3권으로 집필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경현선조님의 서거 350주년이자 선조님께서 판각하여 책으로 꾸내고자 뜻을 세우신 아래 380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안대회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아 궁금했는데 문집에 실린 강양창수록 등을 일독한 후 조선 중기 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경현선조님께서 활동하신 당대의 문학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고 귀중하다고 평가하였다. 김재영 편집위원장은 “예기(禮記)”에 선조에게 아름다운 행적이 없는데도 칭송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라고, 선조께서 선행이 있는데도 자손이 모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선조의 선행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은 어질지 못한 것임이 이세가지는 군자가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다. “라는 한 명언을 소개하면서 뒤늦게나마 이세가지 부끄러움을 이제야 면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지난 200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간행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겪은 어려움과 감회를 술회하였다.

기사 사진 제공 : 충렬공 김방경 기념사업회

東洋 最古의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마태오리치의 坤輿萬國全圖가 17세기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나라에만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훌륭한 세계지도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혼일강리도의 우리나라 부분은 우리나라 全圖로서 현존하는 最古本이다.

그리고 고려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지도학의 발달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둘째, 이 지도를 통해서 조선 초기의 지도제작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익원공 휘 김사형이 명나라의 건국황제 등국 축하사절로 가서 聲教廣被圖와 혼일강리도를 定宗一年(1399)에 구해왔고, 朴敦之가 역시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太宗元年(1401)에 日本圖를 구해왔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당시 조정의 중신인 김사형, 이무, 권근등이 연구하여 李薈로 하여금 이지도를 완성시켰다.

이러한 과정 지도작성에 참여한 사람들로 보아 이지도는 조정의 주도하에 중신들의 세밀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이므로 당시 익원공 휘 김사형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지도학 및 지리적 지식, 중국 지도학의 전통, 아라비아를 통해 받아들인 그리스의 지도학의 지식, 일본의 지도발달 등 혼일강리역대국도를 통해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東洋 最古의 이세계 지도가 중국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조선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또한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충민공(휘) 김흠 향사봉행



2016년 10월 30일 (음 9월 30일) 11시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 339번지 충민공 재실에서 많은 후손들이 참제하에 엄숙하고 정연하게 향사를 봉행하였다.

공은 상락부원군 익원공의 7대손으로 임진왜란시 의병대장으로 전

쟁터에서 장열이 전사 선조께서 공의 용맹과 절교에 감복하시어 시호를 忠愍이라 내리시고 표창하여 墓는 황해도 금천 직동 乙坐에 모셔 있으나 묘지 참배의 어려움이 있어 후손들이 정성을 모아 이곳에 墓를 마련하고 매년 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이날 분정은 초현관에는 충민공회장 재관 아현관에는 수찬 종현관 재식(전첨공회장)님이 현작 하였으며 축관은 수회 집례 재택의 창홀에 따라 참배가 진행되었다 향사종료 후 재실에서 선조님들의 은덕을 기리며 종친간 화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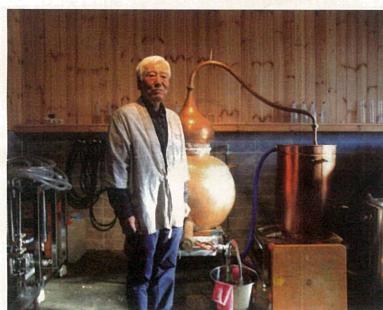
공은 전첨공의 4대손이신 副尉公 承碩의 아드님이다. 임진왜란시 처절하게 순절하신지 한참 후에야 어렵게 시신을 수습하여 황해도 김천의 선고 묘하에 초혼장으로 모셨으나 1605(선조 38년)에 와서야 선무 원종공신 2등에 녹훈되었고 증, 가선대부 병조판서와 증, 시 충민을 추증 받으셨다.

충남 논산 상월면 신성리에 공의 자손들의 세거지인 이곳에 충민공의 단소를 설단하고 표충비를 건립하고 충민재 재실을 공의 12대 손인 학산 재관이 1993년 8월 29일 독단으로 사비를 들여 건립 제공 하였으며 매년 후손들이 이곳에 모여 장군의 은덕을 기리며 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제공 : 공의 12대손 재택」

3대를 이어온 전통주 명맥, 6차산업을 선도하다.

당진 신평양조장,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신평양조장(대표 김동교)이 2016년 11월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타에서 열린 전국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충청남도 대표로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농산업분야에 흘어져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하면서 농산업의 6차산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열리는 대회로 신평양조장이 2016년도 경진대회의 경영체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신평양조장은 1933년 김순식(충렬공 26대, 익원공 22대(손) 대표가 창립하여 2대 김용세 회장이 기반을 확장, 3대 김동교 사장이 품질개선, 운영방법 개선 등으로 3대가

83년 동안 전통막걸리를 제조하는데 가문의 명예를 걸고 심혈을 기우린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양조장에서 제조하는 백련막걸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주 품평회에서 막걸리부문에 2012년 '14년, '15년, '16년 4회 연속 최우수 및 우수상을 석권하였고 홍보분야에서도 K방송 주말 예능 프로인 1박 2일에서 충청도를 대표하는 양조장으로 방송되어 대중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또한 지역 대

표 농산물인 당진 해나루 쌀을 주원료로 만드는 막걸리만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통주 체험장인 백련원을 통해 막걸리 짓기와 원주거르기, 누룩전과 쿠키 만들기 같은 체험을 통해 시대적인 감각을 접목하는 운영방식을 이어오는데 끊임 없이 연구하고 발전해 온 결과로 6차산업화를 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통문화 계승과 전파에도 앞장 서고 있다는 관계 기관의 호평이다.



연속극

재가수행자

이란 인과(因果) 법칙에 따라서 끝없이 돌고 도는 것임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삶이 “연속극”임을 안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왔다가 영영 사라지는 것으로 알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지혜의 눈으로 삶